

58 |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 병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59세 | 직종 | 타이어 제조업 | 업무관련성 | 낮음 |
|----|---|----|-----|----|---------|-------|----|

1 | 개 요

근로자 박○○는 1979년 8월 13일에 ○○타이어(주)에 입사하여 몰드 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3년 경 심한 손 떨림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1995년 9월 정밀진단 결과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타이어 제조에서 몰드는 가류 공정에서 고온의 가류기 안에서 타이어의 외벽 틀을 만드는 금속 부품이다. 근로자 박○○는 몰드 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몰드 수리작업은 주로 폐공 처리와 그라인딩 등이고, 스틸 몰드나 몰드 부속품의 일부는 점 용접을 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된 업무로는 몰드 청소 업무가 있었는데 몰드 사이에 끼인 고무분진을 벗겨내기 위해 글라스 비드, 몰리코트, 방청유 등을 사용한다. 용접 업무와 몰드 청소 업무 여부, 작업 반장으로서의 관리 업무를 언제부터 하였는지에 대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나 용접과 몰드 청소는 단기간,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즉 입사 이후 13년간 주로 수행한 주요 업무는 몰드 수리 업무로 보았다. 작업환경 측정에서 총분진(고무분진) 측정 결과 기하평균값이 0.252 mg/m³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중금속 측정결과 9가지 금속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물질들이 검출이 되지 않거나 아주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유기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총11종의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농도수준은 대부분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아주 미량이었다.

3 | 의학적 소견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은 없었고 과거 병력도 없었다. 1993년 9월부터 오른 팔 상박에 저린 감각이 있어서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다. 1995년 7월, ○○병원에 진료받고 양 측면의 수질과 체성감각 피질 이하의 결손을 보여 당시 월슨씨병, 뇌병변, 파킨슨 병 중 하나로 진단받았다. 당시 흡연 습관은 없었고, 음주는 회식 시 반병 가량 마시는 정도였다. 한방 보약을 복용하곤 하였으나 별다른 약물 복용 습관은 없었다. 두부 부상 경험은 없었고, 가족 중 뇌병변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 없었고, 2000년부터 고혈압이 동반되어 함께 진료를 받았다. 2008년 전문의 특진 의뢰 결과, 대부분 망간이나 일산화탄소에 의한 독성 파킨슨 병은 뇌촬영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나 박○○의 경우 MRI 이상소견은 없어 원인 불명 파킨슨 병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4 | 결 론

근로자 박○○는

- ① 약 6-10년간 ‘몰드 수리’ 및 4-8년간의 ‘몰드 관리’ 업무 등 도합 14년간의 업무를 수행 후, 파킨슨 병을 최초로 진단 받았는데,
- ② 파킨슨 병은 기존에 수행된 문헌 검토상 직업환경성 위험요인이 발병에 작용할 가능성에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 ③ 주 업무인 ‘몰드 수리’ 업무에서 파킨슨 병의 유병과 관련된 중금속 및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용접’ 작업과 ‘몰드 청소’ 작업 역시 명백한 유해물질의 노출이 파악되지 못하므로,

근로자 박○○에서 발생한 파킨슨 병은 작업중 유해 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